2025-11-20

Economy Brief

12월 중 차기 연준 의장이 결정될까?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12월 FOMC회의에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차기 연준 의장 선임도 12월중 주목해야 할 이벤트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연준의장으로 '성장 및 시장친화적 후보'의 지명 가능성이 높음

차기 연준의장에 어떤 후보가 지명되느냐는 연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12월 FOMC회의 금리 결정과 함께 12월 차기 연준의장 선임도 금융시장에 중요 변수

12월 FOMC회의 금리 결정에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차기 연준 의장 선임도 12월중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임 연준의장 변수도 12월 금융시장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차기 연준의장이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중순쯤 최종 후보 세명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신임 연준의장 지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5명의 연준의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으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미셸 보우먼 이사,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릭 라이더 블랙록 CIO다. 이들 후보의 정책 성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월러 및 보우먼 이사의 경우 '안정카드'로 데이터 기반의 점진적 완화를, 워시 전 연준이사는 '규율 회복카드'로 포워드가이던스 절제와 대차대조표 보수 운용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해셋 위원장과 라이더 CIO는 '성장 가속 카드'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서울와이어, 11월 1일 기사 참조)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주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차기 연준의장으로 선임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시장은 헤셋 위원장의 선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분위기다.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도 헤셋 위원장의 선임 확률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참고로 지난 9월 FT가 44%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2%가 차기 연준의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헤셋 위원장을 꼽은 바 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성장 및 시장 친화적 인사'를 선택할 공산이 높다는 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헤셋 위원장이 선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헤셋 위원장의 연준의장 선임 가능성을 높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국정 수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서 집권 2기 들어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뉴욕 시장 선거 패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생활 물가 등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가안정이라는 측면만 보면 헤셋 위원장보다는 '안정카드'이자 물가 측면에서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월러 및 보우먼 이사가 우선시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성향이라는 점에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물인 헤셋 위원장을 차기 연준의장으로 선택할 공산이 높아 보인다.

12월 차기 연준의장이 지명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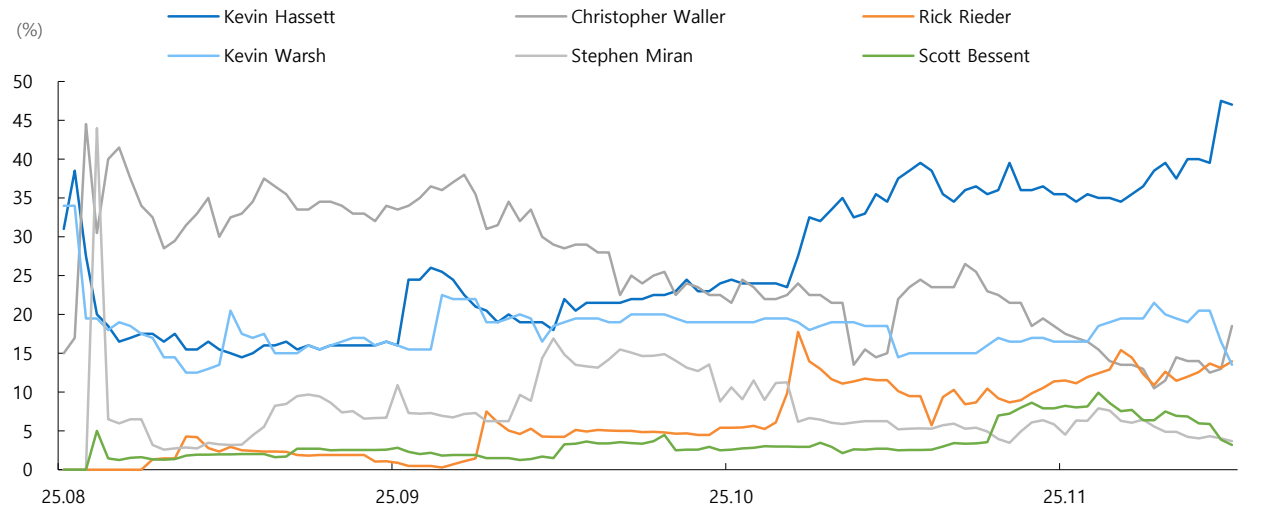
차기 연준의장에 어떤 후보가 지명되느냐는 연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소위 친트럼프인 헤셋 위원장이 차기 연준으로 선임될 경우 가뜩이나 분열된 미 연준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파월의장의 레임덕 현상도 조기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헤셋 위원장 지명 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반색할 여지도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 즉 추가 금리인하 등 유동성 확대 정책이 강화될 수 있어 달러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우려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채시장 불안 등이 증폭될 여지가 있다.

반면 시장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현 연준 통화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고 물가측면에서 매파적 입장을 보이는 월러 혹은 보우먼 이사를 선임하는 '안정카드'를 택할 경우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게 약화될 수 있고 달러화 역시 강세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FOMC회의 금리 결정 및 내년 상반기 금리 가이던스도 중요한 변수지만 12월 차기 연준의장으로 누가 선임될지도 금융시장이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다.

그림1.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도 차기 연준의장으로 헤셋 위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하는 확률이 50%를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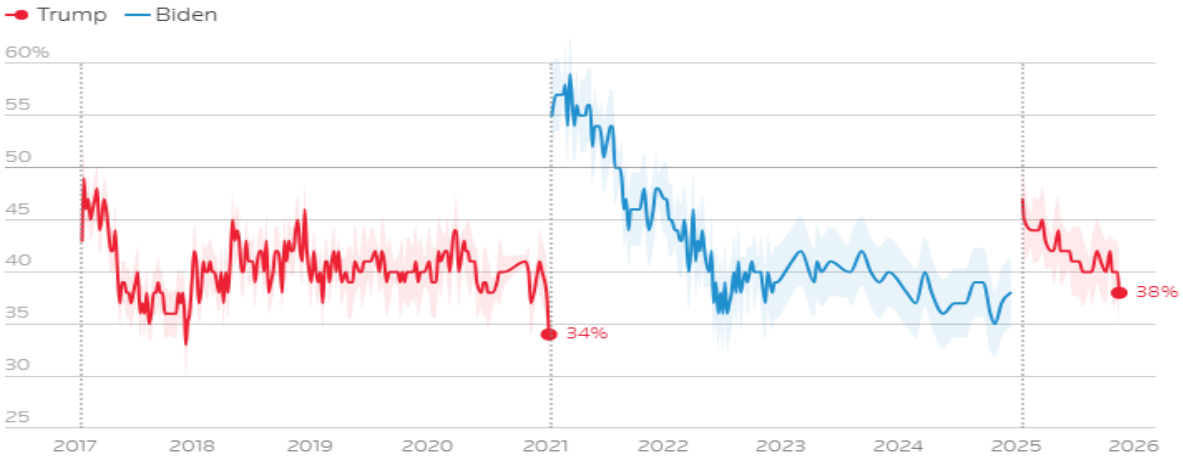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차기 연준의장으로 거론되는 5명 후보의 주요 특징과 최근 금리관련 발언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주요 특징	금리정책 관련 최근 발언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이사)	매파적이었고 데이터를 중시하는 성향이었지만 최근 들어 친트럼프 성향 인물로 분류됨 노동 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는 17일(현지시간)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
	미셸 보우먼 (현 연준부의장)	인플레 경계 강함, 통화정책 완화 속도 경계, 규제완화 선호 물가와 금융안정 균형 우선시 최근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에 선임	"올해가 끝나기 전 두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10월 14일 발언)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역대 최연소(35세) 연준 이사 역임 QE 회의론자 연준에 대한 정치적 영향 차단을 강하게 주장 매크로, 거버넌스 중심 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AI 기술이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연준은 경제 대국 미국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라면서 "세계는 더 빠르게 움직이지만 연준 지도자들은 더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깎아내림. "연준이 해야 할 일 네 가지 중 첫째는 향후 몇 년간 스태그플레이션 예측을 폐기해야 한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물가 억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통화정책 실무자는 아님 연준의 완전한 독립성 지지 정책 전달력, 미디어 친화성 높은 편 감세와 규제 완화, 관세 정책 등을 강력히 옹호하는 인물	-
	릭 라이더 (블랙록 CIO)	시장친화적 속도감 있는 금리인하 지지 완화적 커뮤니케이션 기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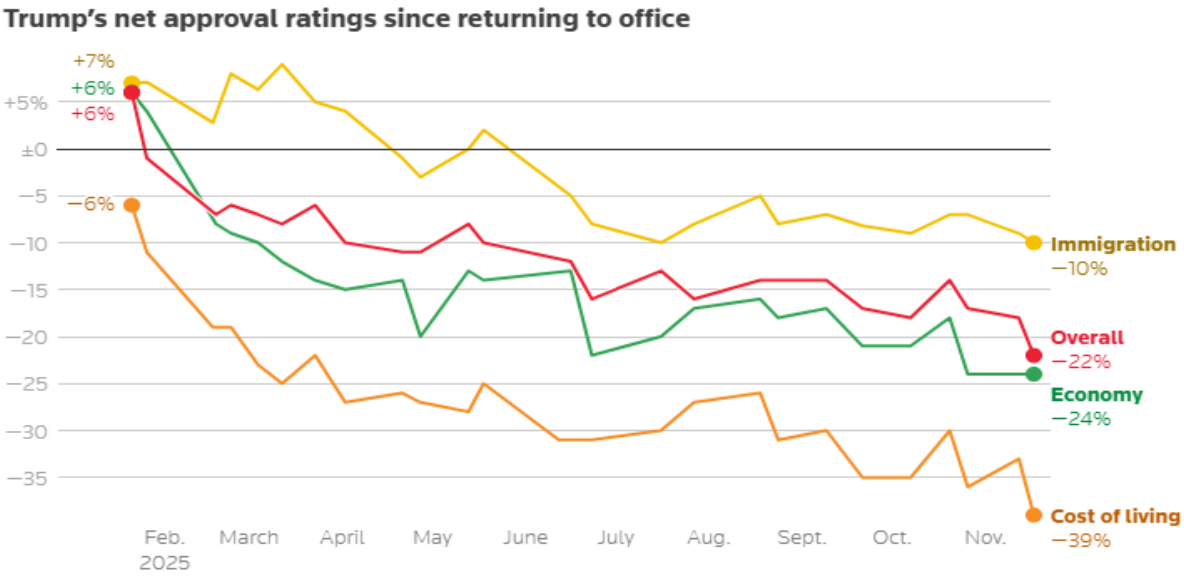
자료: 각종 기사 참조,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집권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최저치 기록



자료: 로이터,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트럼프 대통령 정책 중 생계비(Cost of Living)와 경제에 대한 불만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료: 로이터,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